社 說

포천시민의 날 행사

포천이 市로 승격된 것이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2003년 시 승격 이후 무엇이 변했느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누구나 뭐가 얼마만큼 변했다고 선뜻 쉽게 말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렇다고 市승격이 가져다주는 의미 또한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천이 市로 승격된 이후 세금만 늘었다고 한다. 포천동과 선단동 지역소재 학교 학부모들은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특별 전형이 없어져 오히려 손해를 보고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市승격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관해 포천시 관계자, 포천시의회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그리고 시민들은 분명히 그 뜻을 되새겨 봐야 한다.

포천시는 경기동북부 지역에 위치해 그동안 남북분단 논리에 의해 개발이 유보되어 왔다.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 포천지역이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 대표적인 규제법안이 군사시설보호구역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화해 무드를 타고 규제들이 많이 풀어지면서 포천지역 또한 본격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근 지역개발로 인한 땅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개발민원이 폭증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땅값의 급격한 상승은 도로망 개설과 같은 없어서는 안될 사회간접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이웃간 분쟁이 많아지는 현상 또한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정치인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벌써부터 일종의 소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발언 혹은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동원해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이들 정치인들은 지역이야 어찌되든지 간에 자신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시민을 위한 대표가 아니라 자신의 개인 영달을 위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들 있다.

지금 포천지역 정치인, 그 어느 누구도 포천시 전체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고 그저 개인영달을 위해 그저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국내외 환경은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많은 권한을 이양해 자치단체 스스로 자족기능을 갖도록 권장하고 있다.

시민의 날을 맞아 위와 같이 국내외 환경변화와 포천지역의 현실문제를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정치인들은 개인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포천시민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난 후 시의원 혹은 시장 후보로 출마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시의원 혹은 시장이 되겠다고 한다면 16만 시민을 이끌고 사막으로 향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 또한 미숙한 지역정치인들의 꼼에 속지말고 지연과 학연, 혈연에 의한 판단보다는 포천시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어야 할 것이다.

鄕土원로초대석 ⑮ …… 포천예총 회장 김진동

김 진 동
포천예총 회장

'옳은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불의를 저지른것과 같다'

"지역으로 텃세하는 것은 人間의 갈 길이 아니다"

40여년전 경북 안동에서 교사로 7년2개월동안 재직하다가 교사에게는 너무 제약이 많다며 사나이로서 넓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으로 포천에 둥지를 틀게 된 김진동 (68.사진・포천시 신읍동) 포천예총 회장을 만났다.

김 회장은 "날아다니는 학은 천지가 제것이나 집에서 기르는 닭은 끓는 냄비가 가깝다"며 내 인생을 내 나름대로 펼쳐보기 위해 글씨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성군에 있는 고운사 종각 현판의 글씨를 새기면서 실물자체의 크기를 확인하지 않고는 글을 쓰지 않는 습관에 따라 고운사를 방문했다. 그때 주지스님은 김 회장의 글씨에 대해 "시주님 글씨에는 때가 안 묻었습니다"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김 회장은 몇년전에 포천군수 선거 후보자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해 포천군민의 도덕점수는 몇점이며 후보자의 도덕점수는 몇점이냐는 질문에 모두 100점이라고 답변한 사실에 대해 공자님은 "삼할의 도덕을 지닌 이는 엄청난 군자"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한다.

김 회장은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율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살아가는 도덕심에 대해 경고한다. 또 김 회장은 가치관은 그 시대에 반짝이는 유행에 불과하지만 정의와 진실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강조한다.

포천의 교육에 대해 김 회장은 교육인적자원부의 뒤죽박죽 정책에 장단맞추기에 바쁜 것이 현실이라며 입시위주의 교육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질마저도 사라지게 하는 비극을 낳고 있다고 한다.

포천의 예술에 대해서는 이 지역 예술인들이 이 지역 예술발전을 위해 무장해야 한다. 말로는 문화예술인을 지원하는 문화행정이라고 하면서 외부사람들의 전시회나 공연에 지역 주민들의 인원동원 형태가 계속되는 한 포천예술발전은 어려운 과제임에 분명하다.

지역작가를 삼류작가로 인식하는 행정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포천예술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포천의 향이 담긴 작품을 지역작가들이 만들어내고 그 지역작가를 행정이 지원함으로써 포천시민들이 보다 풍성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평생에 걸쳐 '見義不行則不義'(옳은 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불의를 저지른 것과 같다)를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온 김 회장은 "반월아트홀이라는 거창한 건물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려면 예술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런 작가들에게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다운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역특성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은 '텃세'이며 지역으로 텃세하는 것은 인간의 갈 길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우리 앞에 모자라고 부족한 것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텃세를 앞세우는 것은 문제가 많다.

김 회장은 포천예술인동우회 창립회원이며 1998년12월30일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포천시지부(포천예총)를 창립하여 초대 지부장으로 취임해 2대째 연임하고 있다.

포천예총은 ▶지역의 향토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예술인들의 구심 단체역할을 하며▶대외적으로 포천의 예술인들과 단체를 대표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문학, 미술, 연극, 국악, 무용, 음악, 사진, 연예, 건축등 각종 예술분야를 보여주고 홍보함으로서 예술적 소양을 배양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논의

18일 본지 자문위원회 임원회의

본지 자문위원회는 지난 18일 임원회의를 갖고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별 모임을 갖기로 했다.

본지 자문위원회는 지난 18일 소흘읍 모 음식점에서 제18차 임원회의를 갖고 각 분과위원회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분과위원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분과위원회별 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임원들이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았던 단점을 보완, 임원들도 각 분과위원회에 배정하고 결원인 3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양주승 자문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6일 천주교 가산교회에서 포천신문사와 포천로타리클럽, 포천병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외국인 가족 한마당 잔치에 300여명이 외국인들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면서 "자문위원들의 협조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말했다.

본지 최호열 발행인은 "포천신문은 1990년1월15일 창간되었고, 2000년10월25일 재창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전제하고 "창간 기념행사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12월15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발행인은 "지난 5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포천신문이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자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사랑의 김장전달 운동 전개한다

주부명예기자단 제10차 임원회의 의결

본지 주부명예기자단은 지난 13일 제10차 임원회의를 개최했다.(사진은 사랑의 동전모으기로 모금한 동전을 세고 있다.)

본지 주부명예기자단(단장 임경순)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본지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올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 전달 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결했다.

사랑의 김장전달은 관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약 1천포기를 전달할 계획이다.

배추 1천 포기는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총무 이은미씨가 기증하기로 했으며 주부명예기자단 기자들이 참가하여 김장담그기에 나설 계획이다.

임원 17명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박혜자 포천동지부장이 단독으로 실시한 사랑의 동전모으기 기금을 확인하는 자리를 가져 39만2천190원을 다같이 확인했다. 확인 후 다같이 박수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기사제보 및 기사작성에 관한 논의시간에는 이은미 총무가 연재하는 젖소사랑이야기에를 통해 남편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감사하고 있으며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강옥자 감사는 포천신문 제작과정을 주부명예기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해 제320호 제작과정부터 주부명예기자들이 참여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주부명예기자단이 포천신문에 많은 기사작성은 물론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키로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함께 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인물포커스

이 병 업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장

일동면 유동리 275번지에서 태어나 일동초등학교, 포천중학교, 서울 마포고등학교, 건국대학교 정치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초대 포천군의회 의장직을 수행한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 이병업 (65・사진・군내면 직두리) 회장은 "고등학교를 서울로 선택한 것은 가정교사를 하면서 학생 집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회고한다.

무척이나 먹고 살기 힘든시절 경기도대 학생봉사대 회장으로 옹진군에 봉사활동에 나섰다가 내가 가장 가난한 줄 알았는데 1962년 당시 밥 먹고 산다는 것만 해도 큰 행복임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한다.

1964년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봉급을 받은 것을 집으로 보냈더니 어머니께서 모아 두었다. 이 돈으로 우체국 1면 1국 제도시행으로 모든 면에 우체국이 있었는데 군내면만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설되지 않자 이회장이 우체국을 개설하고 1968년 국장으로 취임한다.

우체국을 잘 운영하다가 지난 1991년 포천군의회 의원 선거에 군내면 후보로 출마하게 된다. 당시 민정당(집권당) 협의회장과 대결하여 당선되었는데 이때 당시 군내면 농민후계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에 이 회장은 농민후계자 모임의 명예회장직을 수행했다.

이 회장은 젊은 농민 후계자들의 도움으로 당선되어 젊은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했으며 의회 윤리강령 제정은 물론 순수한 열정으로 공부도 많이 했다.

포천군의회 1,2대 의원, 1대 의장(후반기), 1대 예산결산위원장, 1대 청원특위위원장, 1대 결산검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포천향토장학금지급조례를 최초로 제정하기도 했다. 어렵게 학교생활을 한 것이 큰 짐이 되어 후대들에게는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盡人事待天命'을 좌우명으로 삼아 노력한 결과 이 회장은 군내우체국이 전국 면단위 우체국중에서 1등을 3회나 차지하는 실적을 거양하기도 했다. 성실하게 남을 속이지 않고 주민을 王으로 쳐다보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다.

이 회장은 선출직은 7~8년이면 충분히 그 능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하면 안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 회장도 7년동안 선출직으로 활동하다가 미련없이 후배에게 넘겨주었던 것이다.

현재 포천신문 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이 회장은 포천신문 창간 때부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었으며 비판기능을 강화시켜 쓴 소리를 자주 접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 질서, 화합의 정신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항상 봉사하는 단체로 남을 속이지 않고 진실 되게 살고 있다.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회장은 역동하는 포천의 모습이 보기에 좋지만 지나치면 개구쟁이가 된다며 행사가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포천시의회의 감시비판기능의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도 좋지만 지금 당장 조각공원 설치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한다. 시급한 것은 43국도부터 넓히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3번 국도의 확포장공사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포천군여성상 심사위원장, 평통위원(7년), 재단법인 경기개발연구원 이사, 법무부 갱생보호 포천군 위원장, 농업경영인 포천시 연합회 고문, 제2건국포천군위원회 운영위원장, (사)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장, 민주정의당 경기8지구당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수상실적으로는 재건국민운동 본부장 봉사상, 체신청장 표창3회, 체신처장관 표창(2회), 농협 중앙회장 표창, 평통사무총장 표창, 제1회 포천군문화상(지역개발부문), 대통령표창 등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 희 자

무봉리토종순대국 대표이사

'무봉리 토종 순대는 돼지 내장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조피를 쓰는 일반 시중의 보통 순대와는 달리 맛이 연하고 부드럽다. 여기에 깻잎, 숙주, 우거지 등 여러가지 야채와 돼지고기, 찹쌀 등 18가지 재료를 넣어 만들어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특히 역겨운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비법은 무봉리 토종 순대국의 자랑이며 사골뼈를 하룻동안 푹 고아서 만든 육수에 순대를 담아 내놓는 순대국은 텁텁하지 않고 구수한 맛과 함께 깔끔한 순대의 참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무봉리토종순대국 이희자(52・사진・소흘읍 이동교리) 대표이사가 무봉리 토종순대국의 맛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대표이사가 주내(현재 양주읍)에서 남편과 함께 월세방 500원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무봉리토종순대국 전국체인망을 갖춘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남을 속일 생각 않고 성심성의껏 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생활신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막국수, 중국집 등을 운영하다가 무봉리순대국으로 발전하면서 얻었던 교훈은 음식점은 친절하고 맛있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었다.

이 대표이사는 5일 동안 순대국 조리법을 배우면서 나는 좀더 나은 방법으로 좀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 항상 연구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무봉리토종순대국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밥맛이 없는 사람이 한 번 먹고 나면 기운이 난다고들 한다. 이 대표이사의 음식점 경영철학은 '친절하고 깨끗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밝힌다.

진실한 말을 해서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 대표이사는 탕 종류의 좀더 간단한 음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이사는 최근 무봉리토종순대국 체인점으로 강남점을 오픈했다. 여기서도 대성공이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다. 이것 역시 깨끗하고 친절한 노하우가 성공을 약속하고 있다.

무봉리토종순대국이 전국체인망을 형성하면서 포천시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기 때문에 포천시가 공식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이 대표이사의 바램이다.

또 무봉리토종순대국을 찾아주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회환원을 시도하고 있다.

이 대표이사는 특히 아이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에만 메달리다가 3년전에 병을 얻은 후로는 골프를 하고 있다. 덕분에 많이 건강해졌으며 여러 사람들과의 우의도 다지고 있다.

포천시체육회 이사, 의정부라이온스클럽회원, 포천신문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중인 이 대표이사가 운영중인 무봉리토종순대국은 지난 97년 무봉리 본점 개설로부터 시작된다. 전국체인망을 형성하고 ▶토종순대전골▶토종순대국▶토종모듬순대▶토종순대▶찰순대 등을 제공하고 있다.

무봉리토종순대국은 체인사업본부를 두고 창업을 돕고 있다. 체인사업본부로 연락하면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일정을 예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체인점 경영과 가맹에 대한 정보를 상담 받으실 수 있다. 점포 입점 위치, 오픈시기, 창업비용 등을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하여 면밀히 분석한 후 투자규모와 수익성을 검토한다.

원하는 후보지와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개설할 체인점 점포를 확보하고, 체인점 개설 일정을 점검 후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무봉리 토종 순대국의 본격적인 파트너가 된다.

가맹점포공사후에 오픈준비 및 운영교육을 마치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성실하게 남을 속이지 않고 주민을 王으로 모신다"

'포천시는 43번 국도 확장공사가 우선돼야 한다'

18가지 엄선된 재료로 만든 토속의 맛과 향취

'친절하고 깨끗하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독자배가 운동에 나서자고 결의

본지 조사위원회 제7차 정기회의

본지 조사위원회는 지난 13일 본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가졌다.

본지 조사위원회(위원장 김종현)는 지난 13일 오후7시 대회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독자배가운동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는 각종 민원사항 등 불편사항에 관한 제보와 다양한 의견개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처리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건폐율 20%인 지역에 건물 신축 관련 민원 원성▶해룡마을 계곡에 쌓여있는 쓰레기 처리 요망▶관내 유선방송의 요금 관련 횡포에 대해 집중 취재요망▶조사위원 구독운동 및 주변 이웃에게 구독확장 운동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종현 조사위원장은 "바쁘신 가운데 많은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포천신문을 통해 포천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조사위원회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등록번호 경기 다 50007
2000. 8. 18 등록
포천신문 http://www.ipcs21.com
발행처:(주)한국정보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213-4 고은 B/D 구독료 : 월 5,000원 / 년 50,000원 / 평생 500,000원
사 훈:주인의식(主人意識) 정론직필(正論直筆) 문화창달(文化暢達)
대표전화 (031)542-1507 발행인 겸 대표이사 최 호 열
편 집 국 (031)542-1506 편 집 인 구 봉 주
광고접수 (031)542-9888 편 집 국 장 김 영 복
구독신청 (031)542-9889 인 쇄 인 김 규 석
F A X (031)541-9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주간신문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한다.